

경북지방 향교의 공간구성

The Spatial Structure of Hyang-Gyo in Gyeongbuk Province



김 무 섭 / 건축사, 문화재실축설계기술자, 건축사사무소 옹마루 대표
 Kim, Moo-Sup / Cultural Heritage Repair Engineer, Yong Maru Architects
 maru0255@daum.net

1. 서론

유학사상은 우리 민족의 기본적 질서체계를 이어온 도덕적 가치관으로서 단순히 한 시대의 사회제도가 아니라 윤리규범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건축문화의 형성·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건축사상이었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지만 그 존재가 미약하고 전국적인 규모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말 주자학의 전래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해 형성된 신흥사대부계층의 관심과 숭유억불정책을 이념으로 하는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향교의 보급을 위한 일읍일향교정책으로 향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교건축과 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짧은 기간에 다량으로 건립되면서 정형화된 배치와 평면을 갖춘 건축물은 그 전례가 없다. 비록 현존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건축된 것이어서 시대별 변화과정을 정확히 고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타 건축과 비교하여 볼 때 전국에 걸쳐 많은 자료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본래의 기능이 대부분 현재까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건축기능의 변화가 격심하지 않은 점, 타 용도의 건물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건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이 향교건축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향교건축의 변천과정

향교건축은 문묘향사, 관리양성, 유학보급, 지역사회교화

등을 위한 조영목적 중 어떠한 기능을 위주로 하였느냐에 따라 공간구성상 변화를 갖게 되었다. 러말선초에는 지방에 설립되었던 교육기관이라 하여도 문묘가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들지 않았다. 따라서 문묘의 향사 기능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조선조 후기의 향교는 초기와 비교하여 제례의 기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향교건축의 시대별 건립목적에 따른 공간구성의 변천과정은 그림과 같으며 고려시대에는 단일건물내에 성현의 신위를 봉안한 공간을 우측에 배치하고 학습공간을 좌측에 배치한 좌학우묘로 구성되었다. 즉 명륜당이나 동서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성전 좌측의 건물을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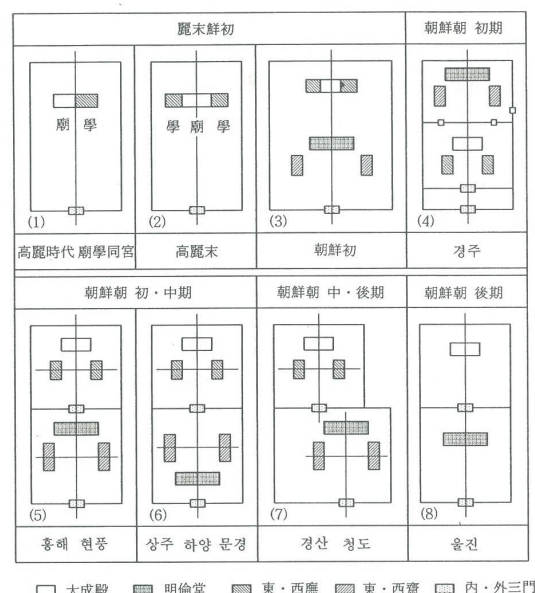


그림 1. 향교건축 배치유형의 시대별 변천과정

또한 14세기 말에는 제사와 교육공간이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었으며 단일건물의 개념에서 한울타리안의 개념으로 제사와 강학공간이 분리된 것은 14세기말 이후 즉, 조선초임을 알 수 있다.

중기에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학계를 주도하면서 학맥을 바탕으로 봉당이 형성되고 지역성을 띠게된 시기로서 이미 '일읍일교'의 원칙아래 많은 향교건축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신설보다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소실된 향교건축이 중수, 이건 되었다.

후기에는 형식적이고 이념적인 유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현실적,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유학사상이 전개되고 봉건적 사상의 유풍이 퇴화하면서 제사와 강학공간의 격식적인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제향공간이 강조된 단순한 공간구성으로 변한다.

3. 향교의 배치유형

향교건축의 배치유형은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의 구성을 입지환경에 의한 고상저하 개념의 위계적 질서규범과 유학적 사상의 전상후하, 좌상우하, 개념에 따라 전묘후학, 전학후묘, 좌학우묘 등의 배치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향교건축의 배치유형

배치유형		향교명
전학 후묘	전제후당	고령, 영천, 용궁, 현풍, 흥해, 봉화, 울진, 신녕, 자인, 칠곡, 영양, 군위, 예천, 인동, 지례, 선산, 영일, 평해
	전당후제	상주, 문경, 하양, 함창
전묘후학		경산, 경주
좌학우묘		청도
좌묘우학		성주, 예안

3.1 전묘후학

전묘후학은 문묘공간이 강학공간 앞으로 나오면서 내삼문-동서무-대성전-외삼문-동서제-명륜당이 일직선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형식은 묘학동공 개념의 상징적 공간으로 존재 하던 묘당이 대성전과 동서무를 갖춘 제향공간으로 구성 되어 유교적 의식행위를 통한 교화기능이 강조되었고 유학보급과 관리양성을 위한 명륜당 영역이 부가된 배치형식이다.

서울의 성균관과 경주향교가 이러한 배치형식을 구성하며, 공통점은 평지에 건립된 점이다. 이러한 전묘후학 배치형식은 일반적으로 기단의 높이와 건립방식이나 마감정

도, 또는 지붕의 경사도, 공포부재 등에 의해 위계질서를 표현 하기도 한다.

경주향교는 계수관향교로서 태학의 제도에 따라서 동서 무가 각각 11칸이 되어 길기 때문에 평지에 건립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계수관향교라도 상하로의 수직적 위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은 전학후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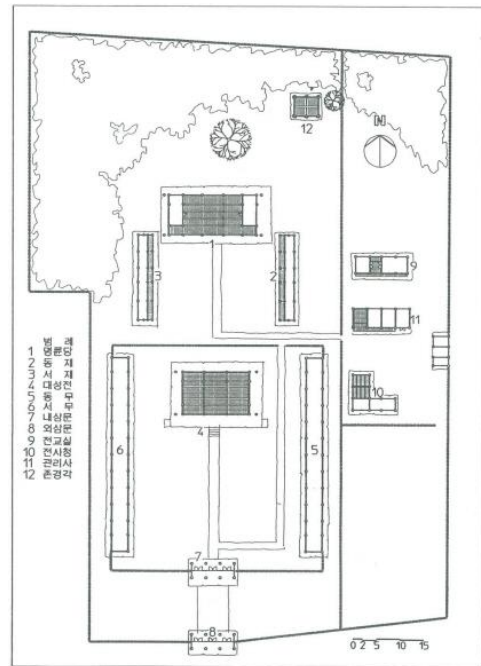


그림 2. 경주향교

3.2 전학후묘

강학공간이 문묘공간 전면에 오면서 외삼문-동서제-명륜당-내삼문-동서무-대성전에 이르는 형식으로 일직선 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식은 지형적 위계에 따라 유학적 사상의 질서규범을 공간적 위계에 맞추어 건물을 배치한 공간구성방법으로서 배치형식에 따른 위계질서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사지에 건립된 대부분의 향교건축은 지방관제와 지역에 관계없이 전학후묘 형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지형적인 고상저하 개념의 질서규범에 의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으나 강학공간의 구성상 경사지형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천향교와 같이 지형적 위계질서에 따라 후면의 가장 높은 곳에 제향의 공간인 대성전을 배치하고 중간에 강론이 이루어지는 명륜당을 배치하였으며 낮은 곳에 교생들이 기거하는 동서제를 배치하여 지형적 위계에 따라 유학적 예 개념의 질서규범이 표현된 전제후당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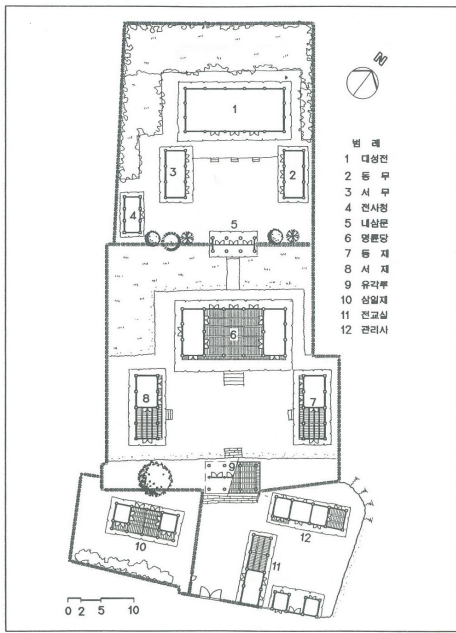


그림 3. 영천향교

반면 하양향교는 강학공간을 전당후제 형식으로 구성되어 명륜당이 지형상 낮은 전면에 위치하게 되고 동서제는 지형상 높은 후면에 위치함으로써 강학공간에서 주건물(명륜당)과 부건물(동서제)의 지형에 의한 위계적 표현이 불합리한 공간구성이 된다. 그림에도 이러한 배치형식을 많은 향교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중기 이후 중수 이진되면서 당시 정계와 학계를 주도한 주기에열의 학자들이 물리적 지형조건 보다는 제향, 강학기능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했던 사상체계를 건축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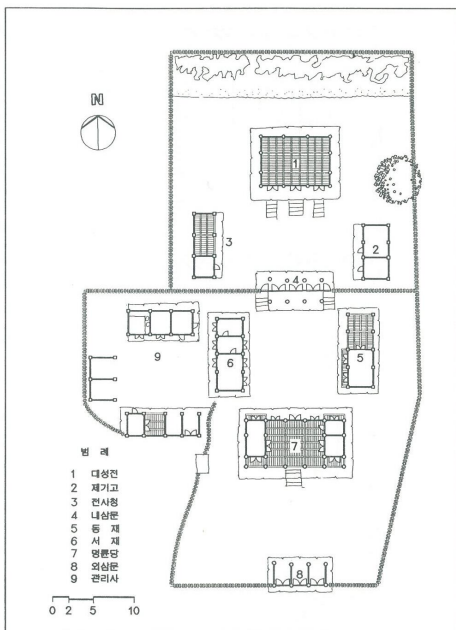


그림 4. 하양향교

3.3 좌묘우학, 좌학우묘

강학공간이 문묘공간의 우측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좌묘우학이 되며 반대로 강학공간이 문묘공간의 좌측에 오는 경우를 좌학우묘라 한다. 청도향교는 좌학우묘 형식이며 성주향교는 좌묘우학 형식의 배치이다. 이러한 배치들은 지형적인 위계에 따라 반드시 높은 후면에 문묘공간을 배치하고 낮은 전면에 강학공간을 배치하여 지형적으로 위계를 형성하여 유학적 예사상의 질서규범을 지형적 위계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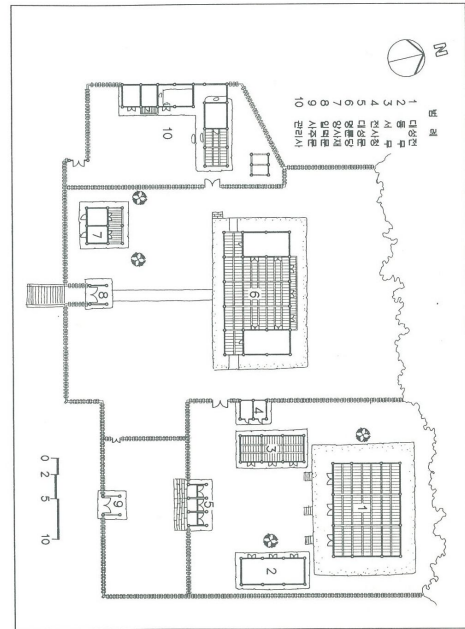


그림 5. 성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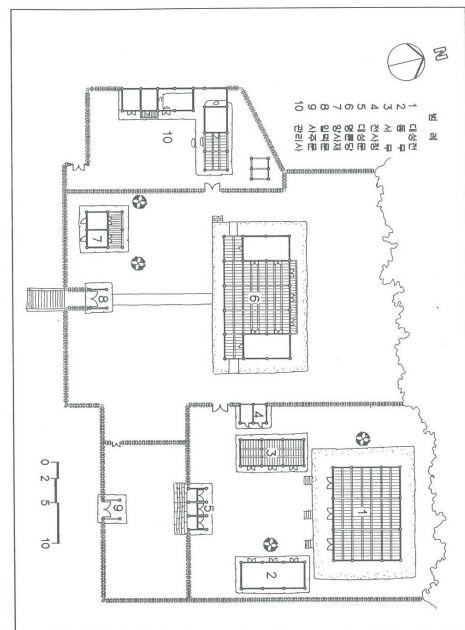


그림 6. 청도향교

4. 향교건축의 구성요소

4.1 문묘공간

문묘공간은 향교의 경우 대성전과 동서무가 갖추어진 것이 완전한 형상이며 이러한 문묘공간은 공자와 성현들의 신위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대성전과 동무, 서무로 구성되어 있다.

향교의 문묘 향사기능은 유교적 규범의 보급이라는 조선시대의 일관된 통치정책의 하나로서 유가적 의례규범을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제향기능을 위한 주건물인 대성전은 공자 및 성현의 신위와 성현, 선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을 지내는 곳으로 향교의 배향인물은 공자, 성현 등 37인 정도를 배향하였기 때문에 대성전 외 동서무를 설치하였다.

대성전은 퇴칸이 있는 경우와 퇴칸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경북의 향교는 28개소중 10개소 즉 38%만이 퇴칸이 있다. 이것은 조선초 성리학이 보편화 되었던 경북에서는 사찰을 혁파하여 그 건물들을 향교 등에 이용한 경우가 많았던 까닭이며, 따라서 대성전에 퇴칸이 없는 형식은 사찰건축을 그대로 답습 했거나 이용했기 때문이다.

목과 도호부에 위치한 향교는 정면 3-5칸 규모의 대성전에 반칸의 퇴를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군에서는 3-5칸 규모이며, 현에서는 90% 정도가 정면 3칸 규모로 되어 있고 퇴를 두지 않은 경우와 퇴를 둔 경우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와같이 대성전의 규모는 지방관제에 따라 부, 목, 도호부, 군에서는 정면 3-5칸 규모이고 현에서는 대체로 정면 3칸 규모로 나타난다.

표 2. 대성전의 평면유형 및 분포현황

平面類型	府	牧	都護府	郡	縣
				청도	영일 고령 문경 경산
		성주	칠곡	영천 흥해	현풍 지례 신령 용궁 자인 하양
	경주			영천 평해	
					인동 군위 예안 함창 자인 하양
		상주	선산		울진 영양

4.2 강학공간

조선초에는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기관을 건립하여 관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능 및 지식전달을 위해 서적을 출판, 보관하는 도서관 기능 등을 수행 하였다.특히 교육 기능은 치국의 전제가 되는 관료자원의 확보 및 성리연구를 위한 강학처로서 강학공간의 구성은 명륜당과 유생들의 기숙사라 할 수 있는 동.서제 그리고 사마제, 양사제 등을 두어 강학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부, 목, 도호부에 교수와 훈도를 각 한 명씩을, 그리고 군, 현에는 훈도 한 명씩을 파견했다.

이러한 중앙에서의 교수관 파견은 명륜당의 설치와 평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즉 교수관 또는 학장 등이 강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명륜당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평면에서는 교수관이 거처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어 통칸마루의 명륜당에서 좌우측의 양쪽이나 혹은 한쪽에 온돌방이 나타나게 된다. 소읍에서는 명륜당이 통칸마루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앙에서 교수관이 파견되지 않은 까닭이다.

지방관제와 경북지방 향교건축의 명륜당 규모는 아래그림과 같이 지방관제에 관계없이 93%가 정면 5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측면은 3칸이 65%, 2칸이 35%로 나타나며 동서제는 학생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면의 크기는 여기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후기로 오면서 강학기능의 쇠퇴와 함께 일부 읍에서는 규모가 축소된 듯하고 현제는 읍의 크기와 관계없이 3-4칸 형식이 가장 많다.

표 3. 지방관제별 명륜당

區分	府	牧	都護府	郡	縣
4X1					慶山
5X2					咸昌, 義興, 禮安, 聞慶 龍宮, 英陽, 知禮,
5X3	慶州	善山		永川, 淸道, 興海	高靈, 奉化, 蔚診, 河陽 玄風, 新寧, 漆谷, 慈仁 迎日, 仁同
6X2					軍威

명륜당과 동서제의 규모가 강학기능이 위축된 이후 축소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 당시의 지방관제 및 인구와 평면의 관계는 아래 그림들과 같고 이 그림에 의하면 명륜당과 동제 서제의 면적은 인구에 비례하거나, 또는 읍의 지방관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방 관제 및 인구와 강학공간의 건축규모

향교명	지방관제	인구수	동계	서계	명륜당
상주	목	3132			
용비	군	1885			
자인	현	1006			
예천	군	3800			
경주	부	5894			
경도	군	3361			
영일	현	1782			
봉화	현	473			

향교명	지방관제	인구수	동계	서계	명륜당
칠곡	도호부	14904			
인동	현	1102			
평해	군	911			
울진	현	1483			
영양	현	481			
미양	현	1087			
지례	현	1200			
함창	현	2140			
의흥	현	955			
신녕	현	1300			

5. 결론

향교란 고려조에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완비된 지방의 관학으로 제향과 강학을 동시에 담당하는 곳이며, 조선조에는 각 지방에 일읍일교의 원칙을 두어 전국 각지에 향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한 향교건축의 변천을 살펴보고 경북지방 향교의 공간구성은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다.

- 1) 향교건축은 시대별로 조영목적에 따라 공간구성이 변하는데 초기에는 문묘제향, 사회교화 기능이 강조되어 강학공간이 문묘공간에 부가된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기에는 제향, 강학기능이 대등한 관계로 인식되고 후기에는 유품이 붕괴되고 향교의 교육기능이 쇠퇴하였지만 조선기 까지도 제향, 교화기능이 유지됨으로써 기능위주의 단순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졌다.
- 2) 향교건축의 배치유형은 제향과 강학공간의 구성을 지형이 갖는 고상저하 개념의 위계와 유학적 질서규범에 의해 전상후하, 좌상우하 등의 배치개념에 따라 전묘후학, 전학후묘, 좌묘우학, 좌학우묘 등의 배치형식으로 구분되며 경북지방의 향교는 80% 이상이 전학후묘 배치로 되어있다.
- 3) 향교건축의 공간구성은 문묘공간, 강학공간, 지원공간으로 구분되며 문묘공간은 대성전과 동무, 서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북지방의 향교는 지방관제에 따라 목과 도호부에 위치한 것은 정면 3-5칸 규모의 대성전에 퇴칸을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며, 군에서는 3-5칸 규모이며, 현에서는 90% 정도가 3칸 규모로 되어있고 퇴칸을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강학공간은 명륜당과 동계 서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북지방의 명륜당의 규모는 지방관제에 관계없이 90% 이상이 정면 5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서계는 교생의 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평면의 크기는 영향을 받았겠지만 후기로 오면서 강학기능의 쇠퇴로 규모가 축소되고 현재는 지방관제에 관계없이 3~4칸 형식이 많다.